



###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 화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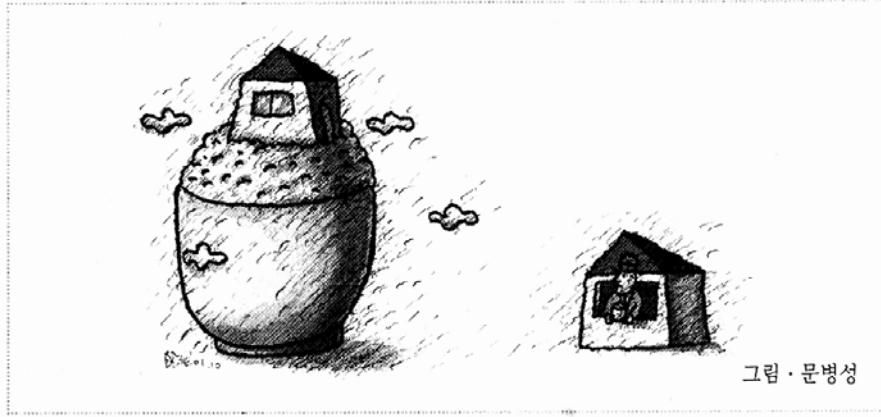
선재 동자의 수행은 계속 이어져, 승열(勝熱) 바라문에게 찾아가 불구덩이에 몸을 던지는(投身火聚) 위법망구(爲法忘身)의 수행을 거치는 등 54본의 선 지식에게 각기 다른 해탈문 곧 '성불하는 수행법'을 배운다. 이런 방식은 첫 품인 제주묘엄 품에서도 본 적이 있다. 제주품에서 모두 425개의 해탈문을 미리 보여 주었다면, 입법계품에서는 54가지 법문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살의 수행계위에 의거하여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수행을 쌓아 가서는 마지막에 선재동자가 미륵보살을 만나, 장엄 누각에서 미륵보살에게 손가락 한 번 통기는 사 이(彌勒一彈之頃)에 앞에서 배운 여러 법문들을 모두 잊고 삼

시 미륵보살의 지시로 "점점 나아가 일백 일십 여성을 지나서 보문(普門)국의 소마나성에 이르러서는, 문에 머물러 있으면서 문수사리를 생각하고 따라 관찰하고 두루 찾으며 뉘엿뉘엿 희망하였다."

다시 문수보살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수행에 나선 중생이 불법의 본원에 가까워진 것이니 곧 '일생보처(一生補處) 보살의 지위'에 오른 것을 뜻하며, 시간(始覺)이 본각(本覺)과 같아짐을 밝힌 것이라.

이런 장면을, <서장(書狀)>에서 대해 선사(1089-1163)는, "보지 못했는가. 선재 동자가 마지막에 미륵보살이 손가락 한 번 통기는 사 이(彌勒一彈之頃)에 앞에서 배운 여러 법문들을 모두 잊고 삼



그림·문병성

## 별의 일생은 무심·무념·무욕

###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우주

#### 탄생과 양식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 항상 경이로움을 느낀다. "저 별도 나와 같이 살아있을까?" "저 별도 지구와 같은 행성을 가지며 또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을까?" 한 번쯤 던져보는 질문들이다. 만약 별들도 우리처럼 살아간다면 그들도 탄생의 시기를 맞이 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별이 탄생하고, 또 낫고 죽어간다.

별들과 별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물질들 성간 물질이라 하고 이것의 큰 집단을 성운이라 한다. 성간 물질은 90%의 가스와 10%의 티끌로 이루어져 있다. 티끌의 크기는 10만분의 1cm로 아주 작지만 전기적 성질을 띤다. 그것은 주위의 가스 분자들을 흡착시켜 티끌을 키우는 촉매역할을 한다. 티끌들은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 서로 끌어당기고 결합하며 성장해 간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운은 점차 중심 쪽으로 수축하는데 이를 '중력 수축'이라 한다.

### 삶이 곧 썩어지지만 취향이 과하지 않으면 빛나는 삶의 길

가니 생이 끝날 때 다시 음식으로 돌아가 잠기노라." "숨(息)은 음식에서 나온 증(蒸)임이요, 마음은 숨에서 나온 증(蒸)이며, 지혜는 마음에서 나온 증(蒸)이요, 환희는 지혜에서 나온 증(蒸)이다." 이 얼마나 감탄할 만한 표현인가!

빈손으로 세상에 나오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먹을 것을 찾는다. 인간뿐이라! 동물 또한 인간처럼 빈손으로 태어나 외부로부터 양식을 구하고 또 이에 의존하며 일생을 보낸다. 그러나 "음식을 구하는 행위 그 자체가 고(苦)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인간의 경우는 다른 동물과 달리 남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가지려는 탐욕에 눈이 어두워 무명(無明)에 허덕이게 된다. 그래서 흑(惑)·무명(無明), 취(取), 애(愛)·행(行), 유(有), 고타(苦)·식(食), 명색(名色), 6처(六處), 수(受), 생(生), 노(老), 사(死)의 삼도(三道)를 통해 생사(生死)의 인과를 나타내는 12연기가 나오게 된다. 별은 자신의 양식으로 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직접 얻거나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통해 양식을 얻는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살림살이는 남에게 직접, 간접으로 피해를 끼치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된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苦)의 과정이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이다.

자식을 두고, 부모를 봉양하는 인연(緣)을 가진 입장에서 양식의 획득에 따른 고(苦)의 과정이 홀로 사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취향이 알맞고 과하지 않으며 가능한 적게 가질수록 남에게 돌아가는 양식의 몫이 많아지니, 지나친 집착과 탐욕을 버리는 것이 이아말로 참으로 빛나는 삶의 길이다.

## 자연과 함께 살면서 '참나' 찾는 아이들

### 지구촌 불교 / 美 산라파엘 현장학습

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애리조나 주의 파타고니아(Patagonia) 시에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배우자'라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실시되는 현장학습은, 아이들이 하루 동안 문명을 등지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나'를 찾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장학습은 한주동안 참가신청을 접수해 실시되는데, 일요일 새벽에 스쿨버스가 참가 신청을 한 아이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아이들의 탑승이 완료되면, 스쿨버스는 애리조나 사막 인근에 있는 산 라파엘(San Rafael) 계곡으로 이동한다. 이때가 오전 10시 경.

파타고니아 시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산 라파엘 계곡은 메마른 땅에서 야생 배나무와 딸밭식물, 선인장 등이 자라는 삭막한 곳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 아이들 대부분은 월 1회나 2, 3회 정도 이 곳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G.그린리프 선생과 함께 텃밭을 채취한 아이들.

### 해·달·동식물 관찰 돌 아인 도리 체득 '불교' 내세우지 않은 불교교육의 장

현장학습은 질문과 관찰로 진행된다. 우선 아이들은 앞서 방문했던 때와 비교해 계곡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관찰하고 기록한다. 또 온도를 측정하고 풍광을 스케치하며, 우량계의 눈금과 태양과 달의 위치를 살피고, 동물의 이동 흔적을 찾아 추적한다.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경험하고 발견한 것을 오후 2시에 시작되는 그룹 토론 시간에 발표한다.

3년 전 이 프로그램을 파타고니아 교육청에 제안해, 현재 교육 과정을 총괄하고 있는 그레이일 그린리프(Gail Greenleaf) 씨는 "아이들이 자신과 자연의 존재를 견주어 보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자연은 서로 긴밀한 관계임을 깨닫고 '돌아감'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데 첫 의도가 있다"며 "아이들이 이 곳에서 배운 지혜를 현실 속에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G. 그린리프 씨는 이를 위해, 현장에서 편성하는 학급의 이름을 집(Home), 이웃(Neighbor), 친구(Friend), 일상(Daily Life) 등으로 짓는다. 공립 초등학교의 선택교육과정으로 시작된 현장학습은, 처음에는 애리조나 초등학교와 같은 공립학교 학생들이 참여했지만, 현재 사립학교 학생들도 참가 신청을 할 만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트라이시클(Tricycle)>지에 파타고니아 시의 초등학교 현장학습을 소개한 스티븐 그레이저(Steven Glazer) 씨는 게리 스나이더(G. Snyder)의 '함께 머물러, 꽃들에게 배우고, 더욱 밝아져라'라는 시구를 인용하며, "불교라는 이름은 없지만, 가장 불교적인 삶의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종욱 기자 goboo@buddhapa.com

## 얻었다는 망상 버려야 참수행

### 믿음의 뿌리 튼튼해야 행원 일으켜

매에서 일어나니 누각의 장엄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하여 미륵보살이 다시 문수보살에게 가서 보살행을 배우도록 권하고 있다. '얻었다는 망상(妄所得心)'을 없애야만 바른 수행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보여준 내용으로 이해하자.

"그 때 선재 동자는 공경하여 미륵보살 마하살을 오른쪽으로 돌고 여쭈었다. '바라옵건대 거룩하신 이께서 이 누각 문을 열어 제가 들어가게 하소서.' 이때 미륵보살이 누각에 나아가 손가락을 튼겨 소리를 내니 문이 열리고, 선재에게 들어가라 하니 선재 동자는 기뻐서 들어갔으며, 문은 곧 닫혔다."

여기서 선재 동자는 세 세상(三世)의 모든 경계에 들어가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지혜로 장엄하는 창고의 해탈문(不忘念智莊嚴藏解脫)'을 얻는다. 미륵보살은, '보살들은 오고 갔이 없이 그렇게 온다. 다니는 일도 없고 머무는 일도 없이 그렇게 온다(無來無去 如是而來 如是而往)'고 말씀하였다.

법문을 듣고 선재 동자는 다

를 뻗어 110유순을 지나 선재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착하고 착하다. 착한 남자여, 만일 믿음의 뿌리를 여의었다면 마음이 웅렬하고 후회하여 공(功) 뒤는 행이 갖추지 못하고 정근에서 떨어져서 한 착한 뿌리에도 집착하고 조그만 공덕에도 만족하여 교묘하게 행과 원을 일으키지 못하며, 선지식의 거두어 주고 보호함도 받지 못했을 것이리라!' (不見 善財童子 未後於彌勒一彈指頃 善哉善哉 善男子 若離信根 心劣憂悔 功行不具 退失精勤 於一善根 心生住著 於少功德 便以爲足 不能善巧 發起行願 不爲善知識之所攝護) (『法華開經』참조)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 이 부분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강한 시절 필자가 눈병이 날 정도로 읽고 또 읽으며 초보심을 다지던 구절이다. 이처럼 수행에 열중하는 모습은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맑은 신심과 용솨음치는 깨달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양이다. 믿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법문선사 능엄학림 연구원』

## 정통 풍수 지리 (강좌)

- ◆ 정통으로 연구 하실 분
- ◆ 명당(陽宅,陰宅)감평 및 안내
- ◆ 강좌 : 매주 화, 수요일  
주간 - 오후 3~5시  
야간 - 오후 7~9시

수시 등록 접수  
02) 762-0077

한국 풍수지리 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 지리산자락 우주구천동 신비의

## 다슬기

당신의 "간·간·간" 관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시죠?  
토종 웅덩이와 비탈면한 자연산 참 다슬기토 쉼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정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①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우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 1kg을 수증기 다슬기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달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됩니다.

②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황아리에 넣고 왕겨 9kg마니를 얹은 뒤왕겨에 불을 붙여 그 옆으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황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타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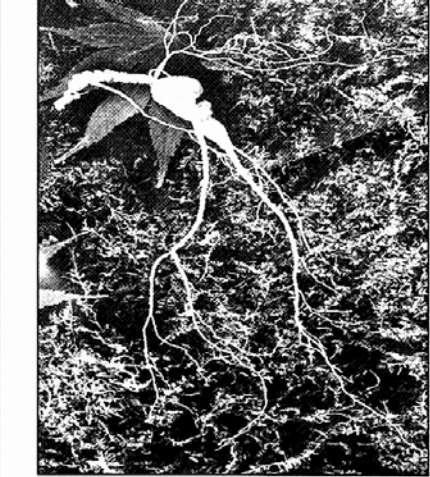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 元·氣·回·復

##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형준비에 지친 수행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을 최가적으로 보내드립니다.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0가지로 모두 360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제까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제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비견되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겨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완장애, 뇌병, 암 등 분침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퇴기는 강하게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지향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養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기를 祈願드리으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으로 敬重으로 敬重드리고자 하니 부담 없이 別論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회의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